

다우기술, 키움증권 없으면 10년간 ‘제자리’... 내부거래 의존도 심화

코스닥 상장법인 다우기술의 지난 10년 간의 성장은 대부분 키움증권과의 거래를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열사의 도움 없이는 실적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서를 통해 다우기술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키움증권을 통한 매출이 성장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389억원이던 다우기술의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10년 뒤인 2023년에는 2946억원으로 23.23% 증가했다. 외형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해온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내재적인 성장이 아니다.

다우기술의 매출에서 키움증권과의 매출거래를 제외할 경우 지난 10년 동

DAOU 다우기술

안 다우기술의 매출은 단 3.45% 증가하는데 그친다.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매출거래 규모는 지난 2014년 332억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818억원까지 증가했다. 10년 새 2.5배 증가한 셈이다.

다우기술의 전체 매출에서 키움증권 매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3.92%에서 지난해 27.78%까지 증가했다.

다우기술이 어려울 경우 키움증권의

내부 매출 2.5배 늘 동안 자체 매출은 3% 증가 키움과의 내부거래 의존도 ↑... 한때 34%육박 키움 전산운용비 지출, 미래에셋증권보다 많아 회사 어려우면 도움 더 받아...증권가 “노력하라”

의존도는 더 커졌다. 지난 2017년 전체 매출 규모가 1819억까지 줄어든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23.91%에서 그 이듬해 34.96%로 크게 증가한다. 그럼에도 전체 매출은 1922억원으로 2000억원을 하회했으며, 만약 키움증권 매출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출은 125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키움증권 입장에서 다우기술에 일

감을 주는 게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회사 규모 대비 전산운용비에 지출하는 자금규모가 큰 곳이다. 키움증권이 지출하는 전산운용비 대부분은 다우기술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내 증권사 중 키움증권보다 전산운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곳은 삼성증권 뿐이다. 삼성증권의 별도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6조원대며 키움증권은 4조원대다. 자기자본이 9조원대에 달하는 미래에셋증권도 전산운용비 지출규모는 키움증권보다 적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매출 비중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외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모회사다. 지분율은 47.70%다. 다우기술그룹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으로 김익래 다우기술그룹 회장에서 다우데이터를 거쳐 다우기술, 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지만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의 의존도 문제는 한 발 비켜나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전체 매출의 12%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릴 경우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하는데, 키움증권과 다우기술은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우기술 입장에서 키움증권에 대한 높은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계열사 매출에 기대다 보면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 발굴 등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휴림로봇, 투자주의 탈출하자마자 또 720억원 유증

HYULIM ROBOT

올해 투자주의 종목에서 간신히 탈출한 휴림로봇이 다시금 확장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차전지 장비업체 이규셀 인수합병(M&A)을 위해 최근 720억원 규모 유증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구주주들에 인식이 좋지 않은 일반공모 방식, 올해 총 3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증 및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후 재차 유증을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직후 휴림로봇은 약 720억원 규모 일반공모 방식 유증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발행 예정인 3500만주는 현 발행주식 총수(7079만4294주) 대비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자금조달의 주목적은 M&A다. 이미 휴림로봇은 오래 전부터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화그룹 산하 이규셀 인수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 지난 8월 이규셀 지분 51.14%를 사들이겠다는 양수 결정을 공시하며 본격적인 인수자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이번 유증증자로 모집하는 자금 중 500억원을 이규셀 지

500억원 이규셀 지분인수, 운영 및 차입금 상환 목적 300억 유증·CB 이어 이번엔 일반공모로 주주 불만 ‘효자’ 휴림에이텍 이어 다시 M&A 성공사례 노리나

분인수 자금목적으로 설정했다. 나머지는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자금에 할당한다.

다만 이를 두고 기존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휴림로봇은 전일 대비 14.68% 하락한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가까이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던 상황에서 또 한 번 급락장을 맞은 것이다.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한 유증증자지만, 주주들은 주주 가치 희석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앓다뒹 매도에 나선 것이다.

휴림로봇은 이미 이규셀 인수를 명분으로 한 자금조달을 여러 번 실시해 왔다. 올해 1월 19일에는 최대주주 휴림홀딩스로부터 100억원 유증증자를, 같은 날 제3차 200억원 규모 CB 발행을 결정했다. 당시에는 이규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에 오히려 주가가 10%대 급등했으나, 이번에는 정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유증이 일반공모 방식이라

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모 방식 유증증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 배정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는 형태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등 우대사항도 없는 데다 오히려 현 주가보다 할인된 주식이 상장되기에 보통 악재로 인식된다.

게다가 일반공모 유증증자는 자금이 필요한 상장사가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고 기존 주주들에게까지 신뢰를 잃은 기업이 진행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공개모집도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수자로 참여한 증권사에서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증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미발행 처리돼 목표 금액을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휴림로봇 측은 공시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제3차 배정, 주주 선공모 등 방식은 소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금조달이 가능한 일반공모방식의 유증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림로봇 측이 반발을 무릅쓰고 과감한 유증증자를 결정한 것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규셀 인수를 완료, 적자 극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 인수한 자회사가 현재까지도 휴림로봇 연결 실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서다.

휴림로봇은 지난 2022년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 기업 디아크(현 휴림에이텍)의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이 휴림에이텍은 인수 후 현재까지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 중이다.

이에 반해 휴림로봇은 지난 2021년 연간 순이익의 적자전환 후 2022년까지 순손실이 지속됐지만, 휴림에이텍 실적에 힘입어 작년 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도 273억원, 555억원, 827억원으로 확대됐다. 영업손실은 지속 중이지만, 2022년(-75억원)에 비해 2023년(-19억원)은 적자 폭이 축소됐다.

단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휴림로봇 주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유증증자 소식에 전제된 후 휴림로봇 주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가를 높여야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유증은 살다살다 처음” 등 차가운 반응을 쏟아내는 중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코스피, 막판 오름폭 줄여 2750대 마감 13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6.72포인트(0.98%) 오른 2,754.89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0.66포인트(0.08%) 오른 871.33에, 원/달러 환율은 2.3원 내린 1,373.9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중국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화승코퍼레이션 ‘2년 절치부심’ 실패사도 인정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상향 전망 산업 호황에 연이은 호실적 외형 확대...신용등급 추가상향도

화승코퍼레이션이 절치부심에 성공했다. 2년 동안 호실적을 거두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계열사 화승알앤에이와 함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는 데 성공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는 전망 자동차 수요 둔화로 매출이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화승코퍼레이션·알앤에이의 재무구조 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산업용 고무업체로 화승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소재, 산업용고무, 종합무역 분야 계열사가 있다. 이 중 화승코퍼레이션이 11.27%의 지분을 소유하는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평가사는 화승코퍼레이션 및 화승알앤에이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각각 상향했다.

앞서 2022년 7월경 한국기업평가는 양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하향 사유는 △비용 상승에 의한 수익성 저조 △그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저하 △향후 차입부담 지속 전망 등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화승코퍼레이션의 영업이익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3% 줄었고, 순손실 360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자비용으로만 252억원을 지출했으며, 30%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57.9%에 달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규모(부채비율)는 436.4%로 4배를 넘었다.

하지만 실행의 우려와 달리 화승코퍼레이션은 부진을 금방 털어냈다.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던 2022년 연간 연결 매출은 1조5854억원으로 당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4배 넘게 증가한 432억원을, 순이익은 157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호실적은 이어졌다. 매출 1조6341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으며,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난 782억원을 거뒀다. 2021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도 두배 이상 증가한 332억원이다.

자동차 전망 산업 호황, 고환율에 따른 수출액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주요 거래처인 현대차·기아의 생산 확대에 따라 화승코퍼레이션의 매출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부문 매출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이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화승알앤에이 역시 영업이익(318억원)과 순이익(242억원)이 각각 두 배가량 성장, 화승코퍼레이션의 연결 실적에 기여했다.

영업실적이 호전되자 재무 상태도 급속도로 개선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은 커졌지만(2023년 380억원), 순차입금은 2021년 6075억원에서 올 1분기 4608억원 수준으로 상당히 축소됐다. 차입금의존도는 47.1%로 여전히 높지만 2022년(60.8%)에 비해 13.7%포인트 감소했다. 부채비율(304.4%)도 대폭 줄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재무구조는 아직 불안하지만, 이같은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전망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돼 화승코퍼레이션·알앤에이의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22년말 수주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주분이 오는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돼, 중장기적인 외형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로 인한 고정비 부담 완화, 수익성 유지가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민원식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화승코퍼레이션은 올해 설비 투자로 단기 잉여금흐름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현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며, 차입금의존도도 40% 초반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금 ETF 하반기에도 달린다

ACE 골드선물레버리지(H), 1개월간 3.42% 하락 ‘단기 조정’ 하반기 회복 전망·2600달러 돌파 전망도... “추가 매수 고려”

올해 고공행진하던 금 상장지수펀드(ETF)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단기 조정에서는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값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 관련 ETF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진 않을 것이라 보고 분석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골드선물레버리지(합성H)’ ETF는 1개월간 3.42% 하락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30.2% 상승한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이 상품은 금 선물지수의 2배를 추종한다.

다른 금 ETF 상품도 마찬가지다. ‘ACE KRX 금현물’ ETF의 1개월 수익률은 -1.75%다. 해당 상품은 한국거래소 금현물에 투자한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과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 ET

F도 각각 1.46%, 1.45%, 1.44% 하락했다.

금 관련 ETF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한 배경은 금값이 일부 조정된 영향에 반기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금 선물가격은 온스당 2,354.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 사상 최고가인 2438.50달러(5월 20일) 대비 3% 가량 하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라 조정을 겪고 있다면서 꾸준한 금 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호주뉴질랜드은행(A NZ은행)은 내년 3월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금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던 한국은행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동안 금을 사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던 금 상장지수펀드(ETF)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단기 조정에는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값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 관련 ETF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진 않을 것이라 보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들이지 않았다. 현재한은은 총 104.45톤(t)의 금을 갖고 있다. 이 중 90%는 2011년(40t)과 2012년(30t), 2013년(20t)에 사들인 것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최근 “한은은 향후 외환보유액의 증가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전개 상황, 국제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금 투자의 시점 및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해 중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금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달러의 대체재로 꼽히는 금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미 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5.25%~5.50%)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7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9명 중 7명이 한 차례의 금리인하를 예측했다. 8명은 2차례의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올해 금리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본 참석자는 4명이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 주도의 긴축 통화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점차 확인되면서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통상 강세 사이클을 띄는데, 하반기 금리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 가격은 단기 조정 후 온스당 2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총 운용자산 30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도법인 총 운용자산(AUM)이 3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펀드 38개, 상장지수펀드(ETF) 20개 등 총 58개의 펀드를 운용하

고 있다. 총 운용자산 규모는 30조원으로, 인도 현지 운용사 가운데 9위 수준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의 운용자산 규모는 최근 5년간 3배가량 대폭 증가했다. 2020년말 기준 10조5000억원이

었던 운용자산은 2021년말 17조8000억원, 2022년말 20조원, 2023년말 25조8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5월말 기준 30조원을 돌파했다. 해당 기간 리테일 고객 수(계좌 수)는 280만명에서 620만명으로 증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주식형 펀드에 이어 최근 채권형 펀드와 주식 및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현지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다. 연초 이후 5월말까지 채권 혼합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총 1조3000억원으로, 이는 2023년 연간 유입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성우창 기자